동학농민혁명
바 로 보 기

목 차

1.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1) 19세기 후반 조선의 위기와 농민 ····· 1
2) 동학의 탄생과 전래 ····· 1
3) 동학 공인(公認)운동에서 정치집회로 ····· 3

2. 고부의 타오른 불

1) 사방통문 거사계획 ····· 4
2) 고부농민봉기 ····· 5

3. 3월 봉기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1)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 6
2) 황토현· 황룡촌 전투 ····· 7
3) 전주성 점령과 청·일병의 조선 출병 ····· 8
4) 완선전투 그리고 전주화약 ····· 9

4. 집강소, 무르익는 개혁의 희망

1) 집강소의 설치 ····· 11
2) 전주회담 ····· 12
3) 군현별 집강소 동향 ····· 13

5. 9월 재봉기 (외세에 의해 가로막힌 꿈)

1) 재봉기 결정 ····· 13
2) 북상과 전국 각지의 봉기 ····· 14
3) 우금치 전투와 농민군의 좌절 ····· 15
4) 해산 그리고 도피와 항전 ····· 16

[참고문헌] ····· 18

1.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1) 19세기 후반 조선의 위기와 농민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안으로는 왕실 척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층이 권력을 독점한 채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그런 가운데 나라의 세금 수취제도 등은 극도로 문란한 양상을 보이며 농민 대중을 수탈하는 도구로 전락해갔다. 이에 항거하는 농민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수십 차례나 일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국가의 통치 질서가 파탄을 맞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밖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서구열강의 노골적인 침략이 계속됨으로써 나라의 형편은 한층 더 악화되어 갔다.

물론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반 유생들의 척사위정(斥邪衛正)운동과 개화 지식인들의 개화(開化)운동이 그런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임시방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대응에 그치는 한계를 지닌 탓에,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시대적 악조건으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언제나 농민 대중에게 지워졌다. 18세기 이래 진행된 경제변동 속에서 더욱 몰락해간 대다수의 영세농, 그리하여 관리와 지주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던 바로 그들이, 위기의 최종적인 피해자였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은 국가와 지주에 의한 이중의 수탈, 열강의 침탈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당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곡창지대인 까닭에 부패한 관리들에게 '보물창고' 쯤으로 여겨졌던 호남의 농민은 다른 지방의 농민에 비해 훨씬 가혹한 수탈에 시달려야만 했다.

2) 동학의 탄생과 전래

통치 질서가 허물어지고 외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농민 대중은 의지할 곳을 찾아 현실부정적인 도참(圖讖)사상이나 미륵신앙, 평등사상을 담은 천주교 등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사상들은 이들의 현실적인 의지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교는 애초 양반지배층의 통치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재래의 민간신앙은 권력의 수탈을

막아줄 조직체가 되기 어려웠다. 불교는 쇠락한데다 은둔적 성격이 강하였고, 천주교는 이질적인 내용 때문에 아직 거부감이 심하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1860년에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동학은 경주의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강의 정신적 배경인 천주교에 대항하고자, 유・불・선(儒佛仙) 3교를 통합한 종교이다. 동학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평등사상과 새 세상이 온다는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그 요지는 신분에 관계없이 그 누구나 동학에 들어와 수도를 다하여 천운(天運)에 순종하고 천도(天道)에 합치하면, 현세(現世)에 조화롭고 정의로운 새 세상 즉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동학은 또 치병과 길흉 예언 등 현실 구복적인 요소를 갖추었고, 척왜양(斥倭洋)의 민족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은 정부와 양반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들의 바람을 그대로 수용하여 체계화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동학은 창도되자마자 농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경상도 일대로 전파되었다. 이처럼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자 곧 정부와 양반은 탄압에 나섰고, 이에 최제우는 1861년 11월 경주를 떠나 남원으로 도피해왔다. 이로써 동학은 전라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고, 이후 서서히 전라도 일대에 퍼져갔다. 그러나 정부가 동학을 위험한 학문으로 지목하고, 1864년 3월 최제우를 처형함으로써, 동학은 불법시 되어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동학은 전라도에서도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흔적을 감추었다.

최제우가 처형된 후 동학교단의 실질적 지도자가 된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은 정부의 탄압을 피해가며 경전을 간행하는 등 교단 정비에 힘을 쏟았다. 이에 힘입어 동학은 1860년대 말부터 1870년대까지 주로 강원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재건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 초반에는 임오군란 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정부가 동학에 대해 손쓸 수 없는 틈을 타고 평야지대인 충청도로 활발히 전파되었다. 전라도의 경우는 1880년대 초중반에 익산 등지에 동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1880년대 후반 들어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3) 동학 공인(公認)운동에서 정치집회로

충청·전라도 일대에 동학교도들이 크게 늘자, 이곳의 수령과 아전 등은 동학 금지령을 핑계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에 대해 동학교도들은 1890년대 전까지는 속전(贖錢)을 내고 빠져나오거나 도망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교세가 커지고 조직화되었으며 탄압과 수탈이 가혹해지자, 90년대부터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즉 동학교단은 창시자 최제우의 복권(復權)을 요구하는 이른바 교조신원(敎祖伸寃)운동을 펼쳐, 동학의 공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번째는 1892년 10월 공주에서 열렸다. 서인주(徐仁周) 등 교단 지도자들은 그해 7월 최시형에게 신원운동을 전개하자고 건의하였다. 이해 10월 신중을 기하던 최시형의 허락이 떨어지자, 동학교도들은 공주에 모였다. 이들은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에게,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하는 한편 교도에 대한 지방관의 학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조병식은 동학 공인여부는 정부가 할 일이라며 거부했으나, 각 읍에 수탈금지령을 내려 교도에 대한 수탈문제는 수용하였다. 비록 신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단지 동학교도라는 이유로 공공연히 수탈당했던 동학교도와 교단으로서는 작지 않은 성과였다.

공주집회의 성과에 고무된 동학교단은 11월 또다시 삼례에서 집회를 열었다. 삼례에는 전라도의 교도 천 여 명이 집결했는데, 여기에는 뒷날 농민혁명을 이끄는 전봉준(全琫準) 등 전라도의 동학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그런 가운데 교단지도부는 전라감사 이경직(李耕稙)에게 최제우의 신원과 교도에 대한 수탈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경직 역시 각 읍에 '동학금지를 빙자한 수탈을 일체 금하라'는 공문을 내릴 뿐이었다. 이후 교단지도부는 삼례집회의 성과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신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 것, 최시형의 지시에 따를 것, 해산할 것 등을 교도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삼례에 모인 교도의 일부는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은 물론, 교단의 해산명령도 따르지 않은 채 복합상소(伏閤上疏)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런 강경한 움직임은 동학 집회운동의 성격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써, 이를 이끈 것은 바로 전봉준 등 전라도의 동학 지도자들이었다.

1893년 2월 동학교단은 광화문 복합상소운동을 전개하며, 동학의 공인을

임금과 조정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단은 여기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이후 오히려 상소 주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따랐다. 이에 교단은 3월 충청도 보은에서 크게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에는 최제우의 신원 대신에 척왜양(斥倭洋)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었다. 동학 집회운동이 동학의 공인요구라는 종교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 성격을 띠어갔던 것이다.

한편 그 직전인 1893년 1월 전라도 일부 관아에는 척왜양을 주장하는 격문이 내걸렸고, 복합상소가 진행되는 사이 서울의 외국 공사관과 교회당에는 서양인과 일본인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괘서(掛書; 대자보)가 나붙었다. 또한 보은집회가 열리던 때, 전라도 금구에서도 척왜양을 주창하는 집회가 열렸다. 괘서사건과 금구집회는 한층 정치적 지향이 강한 것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삼례집회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던 전봉준 등 전라도 동학 지도자들이었다. 요컨대 동학의 집회운동을 통해 전봉준 등 전라도의 동학지도자들이 서서히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강력한 정치적 지향으로 집회운동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차원의 활동을 향해 갔다.

2. 고부에서 타오른 불

1) 사발통문 거사계획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의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호남에서도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꼽히는 고부군에 1892년 5월 조병갑(趙秉甲)이 군수로 부임한 이래,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을 수탈한 것이 봉기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관리들의 부패와 수탈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나, 조병갑은 그 도가 훨씬 심하였다. 그의 수탈방법은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 그는 원래 있던 보(洑)를 허물고 농민들을 동원하여 새 보를 만든 다음 그 농민들에게서 물세를 받았고, 예전에 태인현감을 지낸 자기 아버지의 공적비를 세운다며 고부 농민들의 돈을 빼앗았다. 또한 돈 가진 자들을 갖가지 죄목으로 엮어 가둔 후 속전을 받고서야 풀어주었다.

고부의 농민들은 이런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병갑과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몇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올렸다. 농민들로서는 합법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학정은 그치지 않았고, 농민에 대한 수탈과 처벌이 계속되었다. 이에 '참고 또 참다가 끝내는 더 참을 수 없었던' 고부의 농민들은, 1893년 11월 전봉준 등의 주도하에 이른바 사발통문(沙鉢通文) 거사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우 강력한 무력봉기 계획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목베어 죽일 것.
一.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一.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리(貪吏)를 엄하게 징벌할 것.
一.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2) 고부농민봉기

이 계획은 때마침 조병갑이 익산 군수로 발령남으로써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병갑은 익산으로 가지 않은 채 고부군수로 남기 위해 중앙과 전라감사에 줄을 대었다. 결국 정부는 1894년 1월 9일 조병갑을 고부군수로 특별히 머물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부의 농민들은 거사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튿날인 10일에 봉기한 고부의 농민들은 그날로 고부관아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무기고를 헐어 무장하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었으며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또 탐학한 향리를 처벌한데 이어 조병갑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관아에서 나온 농민들은 말목장터에 진을 치고 대장소(大將所)를 세우는 등 전열을 정비하였다.

한편 봉기 소식을 접한 감사 김문현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체 수습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농민군처럼 위장한 감영군을 농민군 진영에 침투시켜 그 지도자를 체포케 하였으나, 이를 예상하고 대비한 농민군에게 오히려 감영군이 되잡혔고, 그제서야 김문현은 봉기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2월 중순 정부는 조병갑을 체포하고 김문현을 처벌한 후, 박원명(朴源明)을 고부군수로,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고부에 온 박원명은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 폐단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농민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섰다.

감영군의 기습 이후 전략적 요충지인 백산으로 이동하여 봉기를 이어가던 농민군은, 이즈음 내부의 동요를 겪고 있었다. 전봉준 등은 함열 조창(漕倉)에 나아가 전운영(轉運營)을 부수자고 하며 봉기를 확대하려 했다. 반면 향촌의 동장(洞長) 등으로 이루어진 중간 지도자들은 봉기가 경계를 넘으면 반란이 된다며 전봉준의 뜻을 거부하는 한편, 박원명의 간곡한 설득을 접하며 봉기의 종식을 원했다. 이 같은 농민군 내부의 동요와 박원명의 집요한 회유 속에서, 결국 고부의 농민군은 3월 초순 기본적으로 해산하였다.

농민군이 해산한 뒤, 삼례에 머물러있던 이용태는 역졸 800여명을 이끌고 고부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박원명을 꾸짖는가 하면 봉기의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고부일대를 휩쓸며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다. 이런 학정이 벌어지자, 3월 13일경 전봉준은 소수 남아있던 농민군을 이끌고 무장의 손화중(孫化仲)에게로 몸을 피했다. 이로써 고부농민봉기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불씨는 보다 더 큰 항쟁, 부패한 시대 전체에 대한 항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옮겨 붙었다.

3. 3월 봉기 -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1)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고부의 민군이 해산함에 따라 고부에서 도피한 전봉준은 전라도 최대의 동학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무장의 손화중(孫化仲)을 찾아가 '봉기하자' 고 설득하였고, 손화중이 이에 동조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3월 20일 무장(茂長)에서 창의문을 낭독하고 기포(起包)하였다. 일개 군현 단위의 농민봉기가 아니라 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전봉준·손화중의 농민군은 고부를 향해 행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전부터 뜻을 같이하던 김개남, 서장옥(徐長玉) 등에게도 연락을 취하였다.

3월 25일 고부 백산에는 정읍·태인·금구·김제·무장·고창·흥덕·영광 등 호남우도 일대의 8,000여 농민군이 집결하였다. 농민군은 이곳에서 대회를 열어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개남·손화중을 총관령으로 김덕명·오시영을 총참모로 정하는 등 지휘체계를 편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檄文)을 발함으로써 본격적인 농민혁명을 선포하였다.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격문을 낸 농민군은 즉시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를 목표로 북상하여, 4월 1일에는 금구 원평에 진을 쳤다. 농민군이 대규모로 봉기하여 전주로 진격해오는데 놀란 감사 김문현은 급박한 사태를 정부에 보고하고, 감영병과 향병·보부상을 소집하여 고부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두 길목인 원평의 청도리 앞길과 금구의 대로를 지키게 했다. 이처럼 관군이 전주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다 또 관군 10,000여명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농민군은 방향을 바꾸어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4월 6일 고부 도교산(황토산)에 이르렀고, 그 뒤를 쫓던 관군도 뒤이어 도교산 맞은편에 진을 쳤다.

2) 황토현·황룡촌 전투

4월 7일 새벽, 관군은 어둠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기습을 예상한 농민군의 역습으로 관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주하였다. 농민군은 관군과의 최초의 싸움인 황토현 전투에서 큰 성리를 거둔 것이다. 이 승리로 농민군의 사기는 드높았지만, 이들은 북상하지 않고 남하하여 8일 흥덕·고창, 9일 무장, 12일 영광, 16일 함평, 21일에는 장성 월평리에 이르렀다. 농민군이 남하한 이유는 전선을 확대하며 세력을 키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농민군은 남하 과정에서 전주·나주 등지에 글을 보내,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보국안민을 실현하겠다', '대원군(國太公)을 받들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봉기하였다', '군전·환전·연역 등 잘못된 세제운영을 바로 잡으라'고 하며 자신들이 봉기한 뜻을 분명하게 펼쳐 보였다.

한편 정부는 4월 2일에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

하여 800여명의 경군을 이끌고 전주로 가게 하였다. 경군은 6일 군산포에, 7일 전주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황토현에서 감영군이 패한 뒤여서 관군의 전력에 보탬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홍계훈은 일부 병력을 보내 농민군의 동향을 파악케 한 뒤, 자신은 15일 전주를 떠나 금구·태인, 정읍, 고창, 영광으로 내려갔다.

4월 23일에는 장성 황룡촌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날 경군 선발대, 즉 대관 이학승(李學承)이 이끄는 300여명이 월평리의 삼봉아래에 모여 있던 농민군을 공격함으로써 싸움은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50여명을 잃은 농민군이 후퇴하자 경군은 뒤쫓으며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삼봉에 오른 농민군은 곧바로 위로부터 반격을 가했고, 경군은 대대적인 공격에 밀려 결국 패주하였다. 이 싸움에서 경군은 이학승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고, 농민군은 정예부대인 경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왕의 명을 받든' 경군과 싸우고 나아가 이를 격파한다는 것은, 농민혁명 이전의 농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농민혁명의 와중에서, 새 세상을 향한 농민군의 의식과 의지가 한 단계씩 고양되어 갔던 것이다.

경군마저 격파한 농민군은 빠른 걸음으로 북상을 시작하였다. 농민군의 당장의 목표는 전주성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전주는 감영의 소재지이자 전라도의 수부(首府)였다. 또한 조선 건국자 이성계의 영정(影幀)을 보관한 경기전(慶基殿), 그 시조(始祖)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肇慶廟)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전주는 조선정부는 물론, 봉기를 확대하려는 농민군에게 있어서도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전주성 점령에 나선 농민군의 뒤를 홍계훈이 하루 차이로 쫓고 있었다.

3) 전주성 점령과 청·일병의 조선 출병

4월 25일 금구 원평에 이른 농민군은, 이곳에서 임금의 윤음(綸音)을 가지고 온 이효응(李斅應)·배은환(裵垠煥) 등을 공개 처형하여 자신들의 투쟁 의지를 확고히 한 후, 26일에는 전주 삼천(三川)까지 진격하여 숙영하였다. 이튿날 전주성 공략의 채비를 마친 2, 3만여명의 농민군은 전봉준 등의 지도하에 서문 밖에 이르러, 용머리고개에서부터 일자(一字)로 진을 펼치며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감사 김문현은 서문을 닫고 서문 밖에 있는 민가

수천 채를 태워, 농민군이 성을 타고 공격할 것에 대비하였다. 이날 점심 무렵 공격에 나선 농민군은, 성 밖에서 상인과 섞여 있다가 대포소리와 함께 서문과 남문으로 밀고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책략을 구사하며 전주성에 무혈입성(無血入城)하였다. 수비할 병력이 없는데다 허를 찔린 감사와 판관, 영장 등 감영의 관원들은 모두 동문 밖으로 달아났다.

전주성에 들어와 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宣化堂)을 차지한 전봉준은 4대문을 굳게 수비토록 하였다. 이로써 농민군은 전주성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는 농민혁명의 전투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였으며, 정부에 대한 전면적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주성 함락에 경악한 정부는 이원회(李元會)를 양호순변사(兩湖巡邊使)로 임명하여 경군 1,400명을 인솔하고 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함과 동시에, 29일 청군(淸軍)의 파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청나라에 보냈다. 이에 따라 청은 5월 2일 2,500여명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였고, 이 병력은 5~7일 사이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이 청군 요청은,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온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오래전부터 조선 진출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에게 출병의 빌미를 주었던 것이다. 청군이 파견되자 일본은 '(청·일 양국 중) 하나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파견에) 앞서 서로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는 텐진조약을 억지 근거로 또 '조선 내 일본공사관과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조선의 요청이 없는데도 6일~12일 사이 약 6,300여명의 군대를 조선에 진주시켰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안으로는 농민군을 진압하고, 밖으로는 청·일 양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이중(二重)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4) 완산전투 그리고 전주화약

전주성 함락 다음날, 홍계훈의 군대는 완산(完山;南福山)에 진을 쳤다. 완산은 최고봉이 해발 186m 밖에 안되지만 전주성이 한 눈에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어 홍계훈은 건지산(乾趾山), 기린봉(麒麟峯), 오목대(梧木臺), 황학대(黃鶴臺;다가산) 등에 군사를 배치하여 전주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용머리고개 남쪽 산 중턱에 본영을 설치하는 등 전투 준비를 마쳤다.

군진을 형성함과 동시에 경군은 전주성을 향해 포를 쏘아댔고, 이에 맞

서 농민군 수백명이 서·남문으로 나와 완산칠봉의 경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완산전투의 첫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싸움을 시작으로 양측은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는데, 최대의 격전은 5월 3일에 있었다. 이날 서·북문으로부터 돌진한 농민군은 황학대을 점령한 후 용머리고개를 가로질러 경군의 본영까지 육박했으나, 경군의 집중적인 대포공격을 받아 500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성안으로 물러났다. 이때 전봉준은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다.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농민군은 전력상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리하여 황토현·황룡촌전투의 승리, 전주성 점령 등으로 드높았던 농민군의 사기는 크게 꺽였고, 내부의 동요마저 이는 상황이었다.

홍계훈은 완산전투 중에 전라도 각 지역에서 포군을 모으고 정부에 지원병을 청하는 등 강공을 펴는 한편, 해산하라는 글을 농민군에게 잇따라 보내는 양면책을 썼다. 전세(戰勢)를 반영하듯 홍계훈의 글은 점차 공세적인 내용을 띠었다. 또한 관군은 속속 증원되는데 비해 농민군은 고립되어 외부 지원이 끊기고 식량도 모자랐다. 이런 상황에서 4일 '너희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줄 테니 속히 해산하라'는 홍계훈의 글이 전달되었다. 이에 전봉준은 소지문을 보내, 봉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개혁해야 할 27개조의 폐정을 적은 다음 이를 중앙에 보고해달라고 하였다. 일종의 타협안이 제시된 셈이다.

농민군이 낸 27개조 개혁안의 내용은 탐학한 관리의 제거, 부당한 세금 징수의 원천적 철폐, 대원군의 국정 참여, 외국 상인의 불법 활동 금지로 집약되는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이 요구를 수용한다면, 당시 조선의 체제는 사실상 허물어지고 말 것이었다.

홍계훈은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산하지 않으면 군대를 내어 칠 것이며, 해산하는 자는 신변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에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물러나겠으나, 자신들이 올린 폐정개혁 요구에 대한 임금의 어떤 긍정적인 조처가 있을 때에만 무기를 반납하고 완전히 해산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농민군은 전주성을 철수하며 홍계훈은 신변을 보장하고 폐정개혁안을 상주 한다'는 조건으로 타협을

맺었다. 이른바 전주화약이 맺어진 것이다. 유리한 상황임에도 홍계훈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군의 진주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이었다. 즉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농민봉기를 매듭지어 일본군의 주둔명분을 없애고 그들을 철병시켜야 했던 것이다.

5월 8일 농민군은 전주성 동·북문으로 나와 철수하였다. 전주성을 수복한 홍계훈은 달아났던 전주의 관속과 삼례에 있던 신임감사 김학진(金鶴鎭)을 불러들이는 등 행정질서를 정돈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전주성을 수복했으니, 청군(淸軍)이 (농민군 토벌차 전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해 다시 처분해 달라'는 보고를 조정에 올렸다. 농민봉기가 수습되었음을 알린 셈이다. 그러나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가 농민군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곧이어 경군 대부분이 홍계훈·이원회와 함께 귀경한 것도 농민군을 완전히 진압했다고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는 모두 일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데서 온 변화이다. 농민혁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4. 집강소, 무르익는 개혁의 희망

1) 집강소의 설치

전주성에서 철수한 후에도 농민군은 약속의 실행, 즉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을 거듭 요구하였다. 농민봉기의 수습에 나선 감사 김학진은 5월 20일에, '농민군의 무장해제와 귀가, 정부 주도의 폐정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첫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폐정개혁의 관철과 신변보장'이라는 농민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농민군의 세력이 날로 증강되어가자 김학진은 6월 7일 적극적인 수습 방안의 하나로 집강안(執綱案)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농민군의 무장해제와 귀가를 전제로, 농민군으로 하여금 면(面)단위 이하의 행정실무자인 집강을 뽑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보다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6월 21일 일본군의 궁궐 점령이었다. 일본군의 궁궐 점령이란 전주성 수복 즉 내정(內政)이 안정되었음을 들어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자, 억지로 내세운 명분마저 잃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라고 협박하던 끝에 비상수단으로써 궁궐을 점령

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군은 이 직후에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갑오개혁 정권을 세우고 내정을 간섭하는 한편, 아산만에 있던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며 침략야욕을 드러냈다. 일본군의 궁궐 점령 소식을 접한 김학진은 민족적 위기를 명분으로 삼아 농민군 지도부에 회담을 제의하였고, 전봉준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김학진과 전봉준은 7월 6일 전주에서 회담을 가졌다.

2) 전주회담

이 회담에서 두 사람은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내의 안정과 질서를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서 군현(郡縣)단위로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곧 김학진은 농민군의 지배력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치안권과 자치권을 전봉준에게 위임하여 이를 통해 전라도내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전주성 안에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한 전봉준은 송희옥(宋憙玉)을 도집강(都執綱)으로 임명하는 한편, 각 군현에 회담의 결과를 알려 '평민 침학을 금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라' 고 지시하는 동시에 군현 단위로 집강을 두게 하였다.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가 전면적으로 설치 운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봉준은 이어 남원으로 가서 시종 강경한 투쟁을 벌이던 김개남에게 협조를 구했고, 김개남 역시 소극적인 입장에서나마 회담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라도는 전주 감영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와 전주대도소를 중심으로 한 농민군의 집강소체제가 양립하였고, 8월 하순까지 이 틀은 유지되었다. 이 체제 내에서 농민군은 전주대도소를 기반으로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갔는데, "전봉준은 김학진을 옆에 끼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호남을 마음대로 요리하였다. 김학진은 다만 문서를 받들어 시행할 뿐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동학) 도인감사(道人監司)' 라 불렀다" 는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물론 집강소는 전라도에 국한되었고 또한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집강소는 농민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행정력을 장악하고 이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또한 사회개혁의 조건을 스스로 형성해간 것으로서, 농민혁명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 할만하다.

3) 군현별 집강소 동향

집강소는 전봉준과 김학진이 합의한 산물로, 그것이 농민군 개개 조직의 본부인 도소(都所)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강소가 전라도 일대에 모두 설치된 것은 아니며, 그 기능 역시 농민군 세력의 강약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전북의 각 군현을 집강소의 기능에 따라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군이 막강한 세력으로 집강소를 장악하고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한 곳이다. 전봉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던 전주와 금구·태인, 김개남이 장악하고 있던 남원과 임실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한 강력한 농민군 지도자가 있던 고부·무장·정읍·익산·함열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 농민군의 세력이 우세하지만 기존의 행정체제와 협력관계에 있던 지역으로, 순창이 그런 곳이다. 순창은 군수 이성렬(李聖烈)과 순창 집강 이사문(李士文)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 셋째 농민군의 세력이 미약하여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가 곧 폐지되거나, 보수지배층이 집강소를 장악하고 치안기능을 맡은 지역이다. 집강소가 설치된 직후에 폐지된 무주, 그리고 7~8월에 민보군(民堡軍)을 조직한 장수·진안·용담이 이런 곳으로 분류된다. 넷째 농민군이 조직되지 않거나 세력이 매우 약하여, 보수지배층이 처음부터 집강소의 설치조차 거부했던 지역이다. 농민군에게 점령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부 지원 없이 남원의 농민군을 격파할 만큼 민보군 세력이 강성했던 운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전북의 각 군현을 집강소의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보았지만, 사실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집강소의 내용이 확실치 않은 적지 않다. 또한 고산·고창·김제·만경·부안·여산·옥구·용안·임피·흥덕은, 집강소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료의 한계로 아직 잘 모른다.

5. 9월 재봉기 - 외세에 의해 가로막힌 꿈

1) 재봉기 결정

일본군의 궁궐 점령 이후 전봉준이 집강소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것과는 달리, 전라·충청·경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척왜(斥倭) 봉기가 그치지 않고 일어났다. 각지 농민군의 이런 공격적인 활동에 호흡을 같이

한 것은 김개남이었다. 집강소체제에 협조하던 김개남은 8월 25일 남원에 다시 들어와 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무려 7만여명의 무장한 농민군이 참여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전봉준은 남원에 와서, '청·일전쟁의 결과 등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대응하자' 며 신중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김개남은 전봉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때 전봉준은 김개남과 7~8일간에 걸쳐 혹은 다투고 혹은 상의하는, 격론을 벌인 후 전주로 돌아갔다. 상세한 내용이야 알 수 없으나 불과 며칠 뒤 두 지도자가 동시에 재봉기한 것을 보면, 격론 끝에 마침내는 재봉기에 대해 어떤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격적인 재봉기 결정은 대원군의 밀지(密旨)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기회만 노리던 대원군은 8월 25일경 호남의 농민군 등에게 "(너희들은) 일본을 이기기 위한 창의(倡義)에 다같이 참여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붙들어 일으키라" 는 밀지를 보냈다.

이 밀지는 9월초 전봉준이 있는 전주에, 7일에는 남원의 김개남에게 전달되었다.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내정을 뒤흔드는 일본군에 맞서고자, 그렇지 않아도 재봉기를 향해 치달아가던 농민군에게 대원군과 같은 존재의 내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리하여 전봉준과 김개남은 8일경 재봉기를 결정짓고, 각각 전주와 남원에서 재봉기 준비에 들어갔다.

2) 북상과 전국 각지의 봉기

재봉기 결정이 이루어지자,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군은 전봉준과 김개남 휘하로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곧 전주·금구와 남원에는 각각 수만명의 농민군이 무장한 채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서울로의 북상은 한 달여 뒤에야 시작되었다. 이처럼 북상이 늦어진 것은,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또 북상로에 있는 최시형 휘하 충청도 일대 농민군의 합류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처음에 재봉기를 막던 최시형은 자신의 휘하에서도 봉기 요청이 계속되자, 마침내 봉기를 허락하였다. 최시형은 휘하 동학교도들을 손병희(孫秉熙)로 하여금 지휘케 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10월 12일 삼례에 모인 농민군을 이끌고 공주를 향해 북상하였고, 두 부대는 16일경 논산에서 합류하였다. 또한 김개남은 전주성

에 들어와 있다가, 22일경 공주 주변에서 전투를 벌이던 전봉준을 후원하기 위해 금산을 향해 북상하였고, 손화중·최경선은 일본군이 해로를 통해 농민군 거점지인 전라도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 광주·나주로 내려갔다.

한편 9월부터 10월 사이에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경상·강원·경기·황해·평안도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특히 황해도는 해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9월 재봉기는 3월 봉기와 달리 일본 침략군에 대한 대응이라는 특성, 또한 전라도만이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의 농민군이 전라도의 농민군과 연계하여,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강원·경기·황해도의 농민군이 총봉기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9월 재봉기는 반일(反日) 항쟁이었고, 그 무대는 조선 전역이었다.

3) 우금치전투와 농민군의 좌절

10월 전봉준·손병희와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 그리고 전국 각지의 농민군이 척왜(斥倭)의 기치를 걸고 봉기하였다. 한편 일본의 협박을 받던 갑오개혁 정권은 9월 중순, 일본군에게 농민군을 토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군대의 지휘권마저 쥔 일본군은 10월 중순 3개 중대 병력을 세길로 나누어 서쪽 공주노선・동쪽 대구병참노선・중앙의 청주노선으로 내려왔다. 또한 일본군은 경기·강원·황해도 등 농민봉기가 일어난 곳곳에 병력을 보내어 이를 진압하였다.

10월 하순 목천 세성산과 웅치 등에서 관군과 전초전을 치룬 농민군은, 마침내 11월초순 일본군·관군과 공주 우금치에서 전면 전투를 벌였다. 전봉준·손병희가 이끄는 수만명의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공격과 후퇴하기를 40~50차례나 하며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농민군은 잘 훈련된 일본군과 그들의 최신 병기의 화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채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대포와 연발총·최대사거리가 600보인 소총으로 무장했으나, 농민군은 칼과 활, 죽창이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지닌 화승총은 사거리가 100보에 불과했다. 이런 무기의 차이로 농민군은 산 정상에 있는 일본군에게 근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공주 부근에서 밀려난 전봉준은 관군 쪽에 글을 띄워, 농민군과 관군이 연합하여 항일투쟁에 나서자고 하였다.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한 마지막 호소였으나, 관군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전봉준의 뒤를 이어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이 청주를 공격했지만,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다. 이제 농민군은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남하 도중에 논산 황화대에서 일본군에게 또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농민군은, 11월 하순에 재봉기의 출발지인 전주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속되는 패배로 이미 농민군의 전력과 사기는 크게 꺾였고, 더욱이 일본군은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전면 전투는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22일 밤 전봉준·손병희는 고부방향으로, 김개남은 남원방향으로 흩어졌다. 이후로도 태인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전주성에서 흩어지면서 농민군은 사실상 해산 국면에 이르렀다. 이튿날 일본군과 관군은 농민군이 떠난 전주성을 장악하였다.

4) 해산 그리고 도피와 항전

관군과 일본군에 쫓기던 농민군은 금구 원평과 태인에서도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였고, 결국 전봉준은 11월 27일 태인전투 직후에 농민군을 완전히 해산시켰다. 온 몸을 던져 새 세상을 열고 나아가 외세의 침략을 막고자 했던 농민군의 의지와 행동이, 일제의 야욕과 무력간섭으로 좌절되고 만 순간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반일(反日)항쟁으로서의 의미는, 역설적이지만 농민군이 꺾인 후 거국적인 저항 한 번 못하고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후로 농민군 세력이 남아 있었던 각 지역, 특히 전라도 일대에서는 일본군·관군·민보군의 잔혹한 토벌이 전개되었다. 일본군은 일본 정부로부터 농민군을 ‘전라도 서남단으로 밀어부쳐 재기하지 못하도록 모두 살육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이 농민군 토벌에 혈안이 된 이유는 극명하다. 그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데 있어 무엇보다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군과 민보군에 의한 자의적인 살육이 뒤따랐다. 그리하여 189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라도에서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민군 지도자들 역시 대부분 체포·처형되었다. 김개남은 12월 초순 태인에서 잡혀 전주에서 효수되고, 전봉준은 순창에서, 손화중은 고창에서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전봉준은 '일본에 협조하면 살려준다'는 수차례의 유혹을 당당히 뿌리치고, 이듬해 3월 29일 손화중·김덕명 등과 함께 교수대에 올랐다.

농민군의 잔여세력은 이듬해인 1895년 봄까지 대둔산을 비롯한 남해안의 각 섬지방으로 피신하면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재기의 꿈을 접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전투는 12월 중순의 보은 북실전투와 장흥 석대들전투, 그리고 이듬해 2월의 대둔산 항전을 들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하여 수많은 농민군이 현장에서 처형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이러한 농민군 학살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정에서 빚어진 민간인 대량 학살의 출발이 된 사건이었다.

※ 참고문헌

『19세기 민중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배항섭, 고려대출판사, 2015
『전봉준, 혁명의 기록』, 이이화, 생각정원, 2014
『이단의 민중반란』, 조경달, 박맹수역, 역사비평사, 2008
『동학과 농민전쟁』, 이영호, 혜안, 2004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배항섭, 경인문화사, 2002
『동학사와 집강소연구』, 노영필 국학자료원, 2001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신순철·이진영, 서경문화사, 1998
『동학농민혁명 100년』, 김은정·문경민·김원용, 나남출판, 1993
『농민전쟁100년의 인식과 쟁점』, 역사학연구소, 거름, 1994
『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4
『전봉준과 그 동지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5
『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김양식, 신서원, 1996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우 윤, 창작과비평사, 1993
『동학과 농민봉기』, 한우근, 일조각, 1989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신용하, 일조각, 1993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이이화, 한겨레신문사, 1994
『갑오동학혁명사』, 최현식, 신아출판사, 1994
『1894년농민전쟁연구』 1~5,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1991~1995